

## 위 절제수술 후 장기간 생존한 위암환자의 삶의 질

경북대학교병원 외과

김 태 봉, 유 완 식

(목적) 위암의 절제수술 후 근치가 된 장기 생존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고, 위의 절제 범위와 소화관 재건 방법이 수술 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여 절제범위와 소화관 재건 방법의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이 연구를 하였다.

(대상 및 방법)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위암 때문에 위 절제수술을 받고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수술 후 5년째 외래 진료소를 방문한 환자 중에서 재발의 증거가 없고 복강 내 타장기의 질병이 없는 194명(남자 124명, 여자 70명, 평균 나이  $52.3 \pm 10.3$ 세)을 대상으로 하였다. 이들 중에서 위아전절제술을 받은 사람은 157명이었고, 위전절제술을 받은 사람은 37명이었다. 위아전절제술 후 소화관 재건 방법은 위십이지장 문합술에 70명, 위공장문합술이 87명이었으며, 위전절제술 후에는 전예에서 원형문합기를 이용하여 Roux-en-Y 형태의 식도공장문합술을 실시하였다. 모든 환자에서 D2 이상의 림프절 광청술을 실시하였다. 일반적인 암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Spitzer 등의 5가지 항목과 위절제술 후 삶의 질을 평가하는 Troidl 등의 9가지 항목 및 Korenaga 등의 설문지 중에서 위의 두 가지 설문지와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약간 수정하여 위 수술과 관계된 6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.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전체 대상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였고, 위의 절제 범위와 위아전절제술 후 소화관 재건 방법에 따라서도 비교하였다. 통계학적인 방법은 chi-square test와 Student's t-test를 이용하였으며, p-value < 0.05를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.

(결과) 전체 대상자의 Spitzer 지수는 평균  $9.13 \pm 1.38$ , Troidl 지수는 평균  $10.40 \pm 1.92$ , 수정 Korenaga 지수는 평균  $9.99 \pm 1.61$ 이었다. 위의 절제 범위에 따른 3가지 지수 각각의 평균은 양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, 각각의 항목에 대한 양군 사이의 비교에서 Troidl 지수 중에서 사회적-개인적인 항목인 통증이 위전절제술군에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(p=0.016). 위아전절제술 후 소화관 재건 방법에 따른 3가지 지수 각각의 평균에는 양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며, 각각의 항목에 대한 양군 사이의 비교에서는 수정 Korenaga 지수 중에서 설사 항목(p=0.03)에서 위공장문합술군이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.

(결론) 위암의 절제수술 후 근치가 된 장기 생존자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좋았으며, 위 절제 범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, 위아전절제술 후 위공장문합술을 받은 경우에 설사 항목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양상태를 포함하여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.